

퍼스널 컬러에 대한 컬러 선택요인 및 만족도 연구 - 헤어·메이크업 컬러를 중심으로 -

한 명 숙

동주대학 미용계열

A Study on the Personal Color Selection Factors and the Satisfaction - Centered on the Colors for Hair and Make-up -

Myung Sook Han

Dept. of Cosmetology, DongJu college, Busan, Korea

Abstract :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Personal Colors by the age of the woman,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recognition on the factors for choosing specific colors for hair coloring and facial make-up and the consequent satisfaction. The data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research and marketing in the field of color consulting in the beauty industry.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the SPSS WIN program.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ontents to be analyzed, either the percentage calculation or the Chi-square analysis or the ANOVA was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overall recognition of the Personal Colors was generally low in terms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While the degree of recognition was the highest in teenagers, the necessity of diagnosing the Personal Colors was most deeply perceived by the women in their 30s. One of the factors for choosing a specific color for hair coloring was their favorite color for the teenagers, and the Personal Color or the advice of the professional for the women in their 30s. Meanwhile, the highest factor for those in their 20s was the colors in vogue. For the facial color make-up as well, this sensitivity to popular colors was also highest in the twenty-something women. The color choice in consideration of favorite colors and the Personal Colors was the most prominent in the teenagers. The tendency of utilizing the advice of sales people or the professionals was the highest in the women in their 30s. In the survey of satisfaction with the chosen colors for hair coloring and make-up,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in the cases of choosing the Personal Colors in all the age groups, while it was the lowest for the choice of popular colors.

Key words : Personal Colors, Color Selection Factors, Satisfaction

1. 서 론

현대의 뷰티산업은 사회 전반적인 문화현상에 따라 개인이 갖는 선호도, 성격, 감성, 미의식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반영되며, 특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미지 형성에서 색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색은 타인을 지각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모발색과 메이크업색은 개성적인 자아상의 표현에서 개인적인 생활양식 뿐 만 아니라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헤어·메이크업의 컬러 선택에 있어서 색이란 타인이 지각할 시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개인에게 조화로운 색 선택은 여성의 미적 표현에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피부색과 어울리는 모발색과 메이크업색은 한 걸음 나아가 패션과 이미지에 맞는 퍼스널 컬러를 형성하여 토털 패션의 영역과 함께 뷰티산업의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퍼스널 컬러에 맞는 이미지 컨설팅은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캐나다로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최근 얼굴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화순,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연령에 따른 퍼스널 컬러의 인지도와 헤어·메이크업에 있어서 컬러 선택요인 및 만족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이를 뷰티 산업의 색채 컨설팅 연구자료 및 마케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퍼스널 컬러

색채 시스템의 과학적 연구는 1905년 먼셀이 색채체계를 발표하였고, 먼셀 표색법에서 명도, 채도, 색상에 의한 조화론에 서였다(신지식, 1997). 그리고 독일의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의 예술가이며 컬러리스트(Colorist)인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에 의해 계절색에 대한 이론이 시작되었고, 그는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아야하며 그 색은 자기의 주관색이라고 하였다(김수석, 1986).

그리고 피부색과 모발색, 눈동자색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각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채들로 결정 지어지며 피부색, 모발색, 눈동자색은 푸른 색조 혹은 황금색조 둘 중의 하나임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 색채 권위자들은 대개 자연계의 색들을 그룹의 색상으로 동일시하여 4계절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택하기도 하였다(김경순, 1999).

피부색은 피부 상층의 혈액이 있는 헤모글로빈의 붉은색, 기저층의 멜라닌의 갈색, 유극층에 있는 케로틴의 황색 등의 색이 겹쳐서 과립층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김용훈, 1998). 색채학자 고바야시 시즈가 주장한 한국, 일본인 등의 살색은 6.5YR 7/3의 색채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가 황색피부이다. 그 중에서도 색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엷은 핑크빛을 띤 피부, 창백한 피부, 검은 피부, 누런 피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최영훈, 1987). 또 다른 선행 연구 중 피부색에 대한 계측을 실시한 김지은(1998)의 논문에서 색채 색차계(Chroma Meter CR-200)를 이용한 측정 분석치를 보면 평균 얼굴색상은 4.7YR 6.2/3.4로 고바야시 시즈가 밝힌 한국, 일본인의 피부색인 6.5YR 7/3보다 붉다. 얼굴 피부색이 4.7YR로 약간 붉게 측정된 것은 이는 화장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발색도 피부색과 같이 매우 밝은 금발, 백발, 은발, 브라운, 검정 등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모발색은 비록 짧은 머리의 분량이 적은 경우에도 얼굴 바로 옆에 오는 색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의 색조를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된다(염경숙, 1995).

모발색이 검은색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비슷한 갈색계열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오렌지, 와인, 레드, 골드 거기다 무채색의 화이트와 실버까지 모발 염색은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즉, 헤어 컬러링은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과 함께 자신만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토털패션의 한 장르가 된 것이다(이미선, 1999). 또 헤어 디자이너의 헤어컬러 및 헤어 컬러제품 선호도 조사에서 남자는 자연갈색과 청진주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여자의 경우 오렌지색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투명색, 자연갈색, 청진주색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남 · 남윤자 2002).

퍼스널 컬러에서의 눈동자색은 주로 홍채색을 말하며 눈동

자 색은 안구와 시신경으로 이루어지고 안구벽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바깥층은 각막과 강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막은 안구벽 전반부의 1/6-1/5을 차지하며 투명하고 흔히 검은 자위라 하는 부분이다. 홍채는 중막의 전단부로서 중앙에 원형의 동공이 있는 원반모양의 얇은 막으로 한국인의 경우 대개 흑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다(박화순, 2000). 피부색과 모발색과 같이 눈동자의 색도 파랑, 짙은보라, 담갈색, 회색등 차가운 색에서부터 갈색, 어두운 갈색, 녹색 등 따뜻한 색까지 다양하다. 눈동자색은 피부색이 모발색에 비하여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을 선택할 때 피부색과 모발색에 비해 중요한 요소는 되지 않는다(염경숙, 1995).

2.2. 퍼스널 컬러의 선택요인 및 만족도

우윤정(1998)은 한국 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의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 조사에서 자신이 평가하는 얼굴색의 인지정도는 연령,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20대의 경우 노란 편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0, 40대는 회계, 50대는 노랑거나 검게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얼굴색, 피부색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회계 인지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검게 인지하는 사람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피부색에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다. 화장 후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흰 화장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원래의 얼굴색과 같기를 바라는 정도도 높아 자연스러운 화장을 원하고 있었다.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의 선호도 조사에서 흰 얼굴과 피부색을 선호하는 정도가 월등하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흰 얼굴색과 피부색, 흰 화장색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여성의 메이크업 선호도 및 실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색조화장품 선택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품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김효정, 1999).

퍼스널 컬러에 관한 연구에서는 퍼스널 컬러의 선호색과 조화색과의 관련성 조사에서 선호색과 조화색은 대부분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피험자는 선호하는 색이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퍼스널 컬러의 타입과 조화색과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오희선, 1999).

헤어 디자이너들의 헤어컬러 및 헤어 컬러제품 선호도 조사에서 헤어 염색 제품의 선택요인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 자체의 우수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김성남 · 남윤자, 2002).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예비조사는 2001년 10월 5일~2001년 10월 15일까지 부산지역 미용실, 화장품 전문점의 여성고객 80명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의 인지도와 헤어·메이크업 컬러 선택요인 및 그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설문지법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본 조사의 문항수정 및 조사방법을 보완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퍼스널 컬러의 인지도에서 10대 38%, 20대 29%, 30대 20%, 40대 5%, 50대 8%를 각각 차지하여 40대와 50대는 낮은 인지도를 차지하므로 30대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본 조사는 퍼스널 컬러의 인지도와 헤어·메이크업 컬러 선택요인 및 그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부산지역에 있는 미용실(22점), 화장품전문점(17점)의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의 인지도와 컬러선택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컬러 선택요인 및 만족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문항이 없으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우윤정(1998)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에 관한 연구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문항, 퍼스널 컬러의 인지에 대한 문항 5문항과 헤어컬러 염색시 컬러 선택요인 5문항, 메이크업 컬러제품 구입시 컬러 선택 요인 5문항, 그에 따른 만족도 2문항으로 총 문항수 18문항으로 하였다.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조사대상자 540명 중 부적절한 응답 14부를 제외한 526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검증결과 문항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0.63$ 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결과는 인지도 $\alpha=0.54$, 선택요인 $\alpha=0.58$ 로 나타났다.

3.2.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SPSS WIN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으며, 분석할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헤어·메이크업의 컬러 선택요인은 단변인변량분석(ANOVA)을 수행하였으며, 컬러선택후 만족도는 교차분석(Chi-square)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별 구성은 10대(11-20세)가 187명(3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21-30세)가 181(34.4%), 30대이상(31세 이상)이 158명(30.0%)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4.2. 퍼스널 컬러에 관한 인지도

Table 2에서 연령에 따른 퍼스널 컬러에 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얼굴색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10대(M=2.33), 얼굴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에 대한 인지도는 30대

Table 1. Age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구분	응답자	비율(%)
연령 10대(11-20세)	187	35.6
20대(21-30세)	181	34.4
30대이상(31세 이상)	158	30.0
전체	526	100.0

Table 2. Recognition of the personal colors depending on the age

인지도	연령	N	M	SD	F
자신의 얼굴색과 어울리는 색에 대한 인지도	10	187	2.33	0.59	27.624**
	20	181	1.96	0.49	
	30	158	2.30	0.49	
	전체	526	2.19	0.56	
자신의 얼굴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에 대한 인지도	10	187	2.27	0.67	27.004**
	20	181	2.31	0.65	
	30	158	2.85	1.09	
	전체	526	2.46	0.85	
퍼스널 컬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10	187	3.35	0.65	17.653**
	20	181	3.06	0.82	
	30	158	2.80	1.06	
	전체	526	3.09	0.88	
퍼스널 컬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진단의 경험	10	187	4.28	0.74	33.547**
	20	181	3.99	1.09	
	30	158	3.40	1.18	
	전체	526	3.92	1.07	
퍼스널 컬러에 의한 컬러 진단의 필요성	10	187	2.32	0.80	13.013**
	20	181	2.40	0.91	
	30	158	2.85	1.34	
	전체	526	2.51	1.05	

** P<.01

이상(M=2.85), 퍼스널 컬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10대(M=3.35), 퍼스널 컬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진단의 경험은 10대(M=4.28), 퍼스널 컬러에 의한 피부색 진단의 필요성은 30대이상(M=2.85)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퍼스널 컬러에 대한 정보나 인지도가 높았으며, 퍼스널 컬러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윤정(1998)의 한국 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에서 인지도 조사에서는 자신이 평가하는 얼굴색상은 흰 편이 30.2%로 검은 편이 24.1%, 붉은 편이 20.6%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의 경우 노란 편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3,40대는 회계 50대는 노랑거나 검게 인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얼굴색에 대한 인지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되지 않았다.

4.3. 헤어·메이크업 컬러 선택요인

Table 3에서 헤어 염색시 컬러 선택에 관한 선택 요인을 살펴보면, 현재의 유행색 선택은 20대(M=3.25),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은 10대(M=2.56),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은 20대(M=3.10), 자신의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색상선택은 20대(M=2.56)가 각각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각 영역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유행색 선택(F=75.930),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F=65.798),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색상 선택(F=40.371),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F=7.32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 염색시 컬러 선택요인으로 자신이 좋아

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은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퍼스널 컬러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유행색 선택에는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는 헤어컬러 염색시 컬러 선택요인으로 유행색 선택과 선호색 선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은 아주 낮게 나타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성남과 남윤자(2002)의 헤어 디자이너들의 헤어컬러 및 헤어컬러 제품 선호도 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염색컬러 선택 요인으로 남자는 자연갈색과 청진주색을 각각 28.1%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여자의 경우 오렌지색이 29.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투명색, 자연갈색, 청진주색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은 최근의 유행색갈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여자의 경우는 유행색과 자신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크며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able 4에서 연령에 따른 색조 메이크업 컬러 제품 선택에 관한 선택 요인을 살펴보면, 현재의 유행색 선택은 20대(M=3.08)가,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는 경우는 10대(M=2.45),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는 30대이상(M=3.14),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우는 10대(M=2.37)가 각각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유행색 선택(F=52.302),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F=18.567),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F=9.323),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색 선택(F=8.118)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색조 메이크업 컬러제품 선택시 유행색에 대한 반응은 20대가 높게 나타났고 선호색과 퍼스널 컬러를 고

Table 3. Color Selection factors in hair coloring

선택요인	연령	N	M	SD	F
유행색선택	10	187	3.15	0.84	75.930**
	20	181	3.25	0.84	
	30	158	2.08	1.19	
	전체	526	2.86	1.09	
자신이 좋아하는 색선택	10	187	2.56	0.85	65.798**
	20	181	2.21	0.91	
	30	158	1.59	0.53	
	전체	526	2.15	0.88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10	187	2.80	0.78	7.325**
	20	181	3.10	0.86	
	30	158	2.74	1.19	
	전체	526	2.88	0.96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선택	10	187	2.27	0.82	40.371**
	20	181	2.56	0.86	
	30	158	1.80	0.62	
	전체	526	2.23	0.84	

**P<.01

Table 4. Color selection factors in facial color make-up

선택요인	연령	N	M	SD	F
유행색 선택	10	187	2.86	0.78	52.302**
	20	181	3.08	0.98	
	30	158	2.10	1.01	
	전체	526	2.71	1.01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	10	187	2.45	0.72	18.567**
	20	181	2.27	0.87	
	30	158	1.98	0.50	
	전체	526	2.34	0.75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10	187	2.79	0.65	9.323**
	20	181	3.02	0.89	
	30	158	3.14	0.78	
	전체	526	2.97	0.79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선택	10	187	2.37	0.71	8.118**
	20	181	2.36	0.86	
	30	158	2.06	0.78	
	전체	526	2.27	0.80	

*P<.01

Table 5. Satisfaction with the chosen color after hair coloring depending on the age

순위	연령	선택요인	유행색 선택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선택	전체	x ²
만족 1순위	10대	빈도	10	40	24	113	187	69.098***
		연령의 %	5.3%	21.4%	12.8%	60.4%	100.0%	
	20대	빈도	5	52	15	109	181	
		연령의 %	2.8%	28.7%	8.3%	60.2%	100.0%	
30대	빈도	39	44	1	74	158		
	연령의 %	24.7%	27.8%	.6%	46.8%	100.0%		
전체		빈도	54	136	40	296	526	
		연령의 %	10.3%	25.9%	7.6%	56.3%	100.0%	
만족 2순위	10대	빈도	31	64	45	47	187	25.355***
		연령의 %	16.6%	34.2%	24.1%	25.1%	100.0%	
	20대	빈도	26	50	74	31	181	
		연령의 %	14.4%	27.6%	40.9%	17.1%	100.0%	
30대	빈도	28	41	72	17	158		
	연령의 %	17.7%	25.9%	45.6%	10.8%	100.0%		
전체		빈도	85	155	191	95	526	
		연령의 %	16.2%	29.5%	36.3%	18.1%	100.0%	
만족 3순위	10대	빈도	36	52	78	21	187	14.937*
		연령의 %	19.3%	27.8%	41.7%	11.2%	100.0%	
	20대	빈도	40	65	63	13	181	
		연령의 %	22.1%	35.9%	34.8%	7.2%	100.0%	
30대	빈도	20	57	53	28	158		
	연령의 %	12.7%	36.1%	33.5%	17.7%	100.0%		
전체		빈도	96	174	194	62	526	
		연령의 %	18.3%	33.1%	36.8%	11.8%	100.0%	
		연령의 %	54.4%	11.8%	16.9%	16.9%	100.0%	

*P<.01

Table 5. Satisfaction with the chosen color after hair coloring depending on the age

순위	연령	선택요인	유행색 선택	자신이 좋아하는 색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선택	전체	x ²		
만족 4순위	10대	빈도	106	27	34	20	187	17.596**		
		연령의 %	56.7%	14.4%	18.2%	10.7%	100.0%			
	20대	빈도	109	15	27	30	181			
		연령의 %	60.2%	8.3%	14.9%	16.6%	100.0%			
	30대	빈도	71	20	28	39	158			
		연령의 %	44.9%	12.7%	17.7%	24.7%	100.0%			
	전체		빈도	286	62	89	89		526	
			연령의 %	54.4%	11.8%	16.9%	16.9%		100.0%	

Table 6. Satisfaction with the chosen color after facial make-up depending on the age

순위	연령	선택요인	유행색 선택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선택	전체	x ²		
만족 1순위	10대	빈도	16	38	20	113	187	17.995**		
		연령의 %	8.6%	20.3%	10.7%	60.4%	100.0%			
	20대	빈도	13	38	16	114	181			
		연령의 %	7.2%	21.0%	8.8%	63.0%	100.0%			
	30대	빈도	18	44	1	95	158			
		연령의 %	11.4%	27.8%	.6%	60.1%	100.0%			
	전체		빈도	47	120	37	322		526	
			연령의 %	8.9%	22.8%	7.0%	61.2%		100.0%	
	만족 2순위	10대	빈도	19	66	63	39		187	54.456***
연령의 %			10.2%	35.3%	33.7%	20.9%	100.0%			
20대		빈도	15	56	79	31	181			
		연령의 %	8.3%	30.9%	43.6%	17.1%	100.0%			
30대		빈도	50	58	35	15	158			
		연령의 %	31.6%	36.7%	22.2%	9.5%	100.0%			
전체		빈도	84	180	177	85	526			
		연령의 %	16.0%	34.2%	33.7%	16.2%	100.0%			
만족 3순위		10대	빈도	46	56	57	28	187	26.567***	
	연령의 %		24.6%	29.9%	30.5%	15.0%	100.0%			
	20대	빈도	46	62	53	20	181			
		연령의 %	25.4%	34.3%	29.3%	11.0%	100.0%			
	30대	빈도	32	23	74	29	158			
		연령의 %	20.3%	14.6%	46.8%	18.4%	100.0%			
	전체		빈도	124	141	184	77	526		
			연령의 %	23.6%	26.8%	35.0%	14.8%	100.0%		
	만족 4순위	10대	빈도	101	21	41	24	187		22.998***
연령의 %			54.0%	11.2%	21.9%	12.8%	100.0%			
20대		빈도	105	22	29	25	181			
		연령의 %	58.0%	12.2%	16.0%	13.8%	100.0%			
30대		빈도	58	33	48	19	158			
		연령의 %	36.7%	20.9%	30.4%	12.0%	100.0%			
전체		빈도	264	76	118	68	526			
		연령의 %	50.2%	14.4%	22.4%	12.9%	100.0%			

*P<.01

러한 선택은 1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경우는 3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에서는 메이크업 컬러 제품 선택시 유행색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과 피부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선택이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김효정(1999)의 20대 여성들의 Make up 선호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메이크업 컬러 선택시 아이섀도우는 브라운계열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Pink나 Green, Blue, Orange 등 다양한 색을 즐겨 바른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선택요인은 본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답이 47.2%로 가장 많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대에서의 메이크업 컬러 선택시 선택요인이 유행색으로 나타난 본 조사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헤어 염색 및 색조 메이크업 컬러 제품 선택에 관한 만족도

헤어 염색시 컬러 선택 후와 색조 메이크업 제품 선택 후 만족도가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Table 6와 같다.

Table 5에서 헤어 염색후 컬러 선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10대는 퍼스널 컬러에 의한 색상 선택,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유행색 선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 이상은 퍼스널 컬러에 의한 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유행색 선택, 선호색 선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관계없이 만족도는 퍼스널 컬러에 의한 선택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유행색 선택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6에서 색조 메이크업 제품 컬러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10대는 퍼스널 컬러에 의한 색상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 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유행색 선택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피부 색이나 모발색을 고려한 색 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선호색 선택, 유행색 선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10대와 같이 퍼스널 컬러에 의한 색상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호색 선택,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유행색 선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에서 만족도는 퍼스널 컬러에 따른 컬러 선택시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유행색 선택시 만족도는 모든 연령에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메이크업 컬러제품 선택과 헤어 염색시 컬러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인지도와 연령에 따라 컬러선택요인과 만족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1. 여성의 퍼스널 컬러의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의 인지도는 대체로 낮았으며 연령대에서는 10대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

으며, 퍼스널 컬러의 진단의 필요성은 3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헤어 염색시 컬러 선택요인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은 1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퍼스널 컬러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 유행색 선택에는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30대 이상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선택에서 낮게 나타났다. 색조 메이크업 컬러제품 선택시 유행색에 대한 반응은 역시 2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색과 퍼스널 컬러를 고려한 선택은 1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경우는 3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헤어·메이크업 컬러 선택 후 만족도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퍼스널 컬러 선택 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색 선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소비자들이 뷰티 산업현장에서 유행색이나 선호색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만족도가 낮은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역할 부족으로 사료된다. 현대의 많은 여성들은 모발염색 또는 메이크업 색상의 컬러 선택에서 그에 어울리는 특정한 색을 선택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퍼스널 컬러에 대한 여성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컨설팅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태이므로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뷰티산업에서의 색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색채컨설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 이 연구는 동주대학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김경순 (1999) 피부색과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의 이론적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5(1), 53-93.
 김성남·남윤자 (2002) 헤어 디자이너들의 헤어컬러 및 헤어컬러 제품 선호도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188-191.
 김수석 (1986)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예술". 지문문화사, 서울, p.39.
 김지은(1998) 우리나라 도시여성의 기성복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피부색과 조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훈 (1998) "색채매카미즘". 법문사, 서울, p.114.
 김효정 (1999) 20대 여성들의 Make up 선호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1), 195-208.
 박희순 (2000) 의상연출을 위한 퍼스널 컬러에 대한 문헌연구. *대구대인문예술논총*, 21, 307-331.
 신지식 (1999) "색채표현". 조형사, 서울, p.86, p.88.
 이미선 (1999) "Hair Color Art". 현문사, 서울, p.55, p.69.
 우윤정 (1998)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경숙 (1995) "패션코디네이트와 이미지컬러진단". GRAPHIC사, 동경, p.12.
 오희선 (1999) 퍼스널 컬러에 관한 연구-선호색과 조화색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3(2), 31-36.
 최영훈 (1987) "색채학 개론". 미진사, 서울, p.37.